

### 219 전주문화재야행 성료

# '전주의 밤을 빛과 소리로'

#### 유명 유튜버 공개방송 통해 현장 전 세계 전파 '문·활·탄' 올 첫선... 2차 야행은 9월 진행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25일과 26일 이틀간 경기전과 풍남문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1차 2019전주문화재야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문화재야행은 문화재청의 2018년 문화재활용사업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올해는 더욱더 풍성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전주의 대표 야간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날 전주문화재야행은 '문화재 예술의 8(8)야심작'을 슬로건으로 △빛의예술 △문화재예술 △이야기 예술 △그림예술 △공연예술 △음악 예술 △여행예술 △홍익예술 등 8개 분야 2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오후 8시 방수미 명창의 소리로 포문을 연 개막공연에서는 예화무용단, THE 관대, 바람의 악사, 한국남자(이희문과 프렐류드, 농놈)등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객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경기전 광장을 소리와 빛으로 채웠다.

특히, 올해 야행에서는 유명 유튜버가 공개방송을 진행, BJ 의질혜를 비롯한 8명의 유튜버들은 전주문화재야행의 이모저모를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등 어진박물관 앞에서 관람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야기예술의 버스킹 대화'는 지난해 문화재야행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전주문화재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입담으로 사로잡아 흥미로운 전주의 역사이야기를 들려줬다.

조선시대 왕이 된 내 얼굴(거리의 화공), 달빛 아래 즐기는 차한잔의 여유(달빛차회), 태조의 특별한 만남(태조를 만나다), 왕과 걷는 경기전 발길(왕과의 산책) 등 마치 조선시대로 와 밤마실을 나온듯한 프로그램들은 올해도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문·활·탄-문화재활용기의 탄생'에서는 총 6팀(1팀 6명, 멘토 6명)으로 구성된 전국 대학생들이 전주한옥마을에서 1박 2



**'두 바퀴로 행복한 전주' ... 자전거 한마음 대행진**  
전주시는 지난 25일 전주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민자전거 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자전거 행진에서 참여한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전주시청을 출발해 기린대로와 중합경기장사거리, 전주역, 아중역을 지나 전주시청에 돌아오는 약11km 코스의 도심 도로를 함께 달렸다.

일 동안 머물며 다양한 문화재를 체험하고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 발전 방향 등을 토론하면서 전주의 밤을 청년들의 뜨거운 토론의 열기로 가득 채웠다.

또한 전주사고에서 진행된 '경기전 준비실록'에는 정원 100여명의 인원이 예약 시작 이틀 만에 매진이 되며 큰 관심을 받아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전주문화재야행은 오는 9월에 2차 야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063-232-99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선거 지지 조합원에 접대한 전북 A 조합장 입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대접한 전북 모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 1월 8일 도내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임원이던 축협이 조합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여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 등을 조사해 A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소싸움 행사장 테이블 훔친 40대 붙잡혀

소싸움 행사장 테이블을 무더기로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36분경 전북 완주군에서 개최된 '제14회 완주군민속소싸움대회'에서 210만원 상당의 테이블 36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새벽을 틈 타 테이블을 1t트럭에 싣고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행사장에 테이블을 빌려준 임대업자로 다른 임대업자의 테이블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행사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체포했다.

#### '방과 후 교사인 척' 보조금 타낸 유치원 원장 입건

유치원 사무직원들을 방과 후 교사로 속여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완산구 모 유치원 원장 A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치원 사무직원 2명을 방과 후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금 2천 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무직 직원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차량 훔쳐 달아난 50대 검거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45분경 무주군내 노상에서 차량열쇠가 꽂혀 있던 시가 680만원 상당의 포터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중학생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수십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 학교 학생 20명이 설사나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4명은 완치됐다.



**전북 시니어 돌봄 봉사단 발대식**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4일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북 시니어돌봄 봉사단 발대식을 도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했다.

## 지역 변화 이끌 사회혁신 '쟁걸음'

#### 전북사회경제포럼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기획 프로젝트 수행 7팀 선정

전주시가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사회혁신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시는 시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실험을 진행하는 '사회혁신 기획협력사업'과 시민들의 사회혁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혁신캠퍼스 조성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센터장 조선희)는 최근 공모한 '2019 사회혁신 기획협력사업-지역의 변화'를 수행한 총 7팀의 참여단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7개 단체들은 24일 간담회 및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총 5억원을 지원받아 전주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실험에 착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전북사회경제포럼'은 '맑은 공기를 위한 생활성 연소 저감 주민혁신 사업'을 주제로 생활성 연소 관련 시민참여와 교육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과 실험에 나선 계획이다.

또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혁신을 통해 전주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이를 계기로 시민친화형 버스노선 개편을 이루는 목적의

실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예술기획연구소의별 등이 전주형 지역중심 돌봄 모델 개발과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청년의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실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주체들을 돕기 위한 사회혁신캠퍼스 조성사업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곳은 △실업·창업공간 △사회혁신 관련 단체들의 입주·협업·공유공간 △도시혁신 아카데미 공간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논의**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24일 1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초청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구정 주요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덕진구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주민자치위원장을 격려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구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도내 예술가, 예술을 상품으로 변화시킨다

####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예술가와 아트상품 개발 시작 참여예술가 18명 선정 상품개발비·아트페어 참여 지원

예술인작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 사업'이 본격적인 상품개발에 돌입했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5월 22일까지 공모 심사를 거쳐 송지호, 김시호, 이희준 등 18명의 지역 예술가를 선정해 상품개발비, 교육, 컨설팅, 아트페어 참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거나 전라북도 출신 작가로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등 순수시각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업 작가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사업목적에 맞추어 원작을 활용한 문구, 리빙, 패션 등 다양한 상품군뿐만 아니라 자립역량 강화에 재 환원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안했다.

지난해 사업결과 도감택포젝트 협동조합 등 7개 단체가 선정돼 스킨, 예코백 등 45종의 상품이 개발됐고 연말에는 아트페어에 참가해 개발상품을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단 문화사업팀 임진아 팀장은 "작가들이 창작활동의 확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들과 제작방식들을 제안하고 있어 아트상품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원작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유쾌한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요양병원 노인 사망진단서에 '병사' 작성 '충격'

#### 도내 모 80대 노인 사망 사건 당시 은폐 시도 의혹

전북 모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80대 노인 방치 사망 사건' 당시 해당 병원이 사망원인을 병사로 작성해 은폐 시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경 진안군 내 모 요양원에서 일어난 노조파업으로 인해 자매병원인 전주시내 모 요양병원으로 환자 33명이 급급차와 승합차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로 만 하루가 지나서야 승합차 뒷 자석에 방치된 A모(89)씨를 발견했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대해 병원은 할머니 건강상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건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이라며 "할머니가 나 왜 안 데리고 가냐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 또한, '의도성 여부'에는 '비의도적 사고', '자살', '타살', '비상' 등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해당 칸에는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병원은 A씨를 25시간

동안 승합차에 방치한 사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병사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사고사는 문동으로 맞아 죽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원인이 분명하다"며 "과실에 의해서 돌아가셨어도 심장지인지 백혈병인지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은 환자가 사망하면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지닌 병원에서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첩보를 받고 인 지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관리부주의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한편,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석훈 기자

## 전주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연찬회

#### 의안심사·결산검사 과정 등 강의 진행

전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2019 전주시의회 연찬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의회의 연찬회는 지난 23일부터 이남까지 부안 모항 해나투가족호텔에서 진행됐다.

연찬회에서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의원과 시의회 직원들을 상대로 의안심사 및 결산검사과정에 대한 강의를 이뤄졌다.

연찬회 첫째 날 시의원들은 의원으

로서 갖추어야 할 조례안의 입안과 심사 전반에 대한 역량강화 강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시의원들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의 '조례 입안 및 심사 전략과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했다.

이튿날에는 정청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을 초청해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결산검사'라는 주제로 결산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기법을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이번 연찬회가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